

자동차 디자인의 새로운 트랜드 연구 (크로스오버 개념을 중심으로)

New Trend in Automotive Design (Focusing on Crossover Concept)

정 주 현, 이 균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Chung Joo-Hyun, Lee Keun

Dept. of Industrial Design, Hongik Univ.

Dept. of Industrial Design, Hongik Univ.

● Keyword : Crossover, Multi Function, Adaptability

■ 크로스오버 자동차의 일반적 특징

1. 서론

21세기 자동차 디자인에서 부각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크로스오버(Crossover)' 개념이다. 크로스오버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합쳐 또 다른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 낸다는 면에서 이미 사회전반에서 보여지는 퓨전(Fusion)적 성향과 그 본질을 같이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크로스오버 개념이 적용된 모델들이 계속 선 보임으로서, 서로 이질적인 차종, 기능간의 결합을 통하여 자동차 디자인의 또 다른 전형(Paradigm)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장르로 정착 해 가는 느낌이다. 각 장르별 장점을 하나로 끌어 다목적기능 (Multi-Purpose Function)을 창출함으로서 지금까지 자동차의 영역과 사용성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노력으로 받아 들여 전다.

2. 본론

■ 크로스오버 개념 분류

크로스오버 개념이 적용된 자동차는 기능적 결합뿐 아니라, 사용자, 세대간의 결합을 유도하고, 상반된 조형 언어, 재료들을 교차 적용하여 그 양상과 목적도 다양하다.

- 기능적 크로스오버(Function Crossover)

RV(Recreation Vehicle) 자동차의 4WD 구동방식을 기본으로 세단(Sedan), 쿠페(Coupe), 웨건(Wagon), 트럭(Truck) 등의 특성을 결합 서로 기능적 단점을 보완하고, 실내공간의 가변적 사용성을 확대한다.

- 조형적 크로스오버(Style Crossover)

조형적 통일성(Form Identity)보다는 파괴, 강조, 불균형, 단순함 등 서로 이질적인 조형 특성을 적용함으로서 주요 기능부의 조직 및 시인성을 부각시켜 강한 인상과 차별성을 강조한다.

- 생활유형 크로스오버(Lifestyle Crossover)

운송수단의 일차적 기능에서 나아가는 세대와 생활유형간의 다양한 생활국면(Facet)에 맞도록 기능과 용도를 가변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사용자의 폭을 넓히고, 가정, 직장, 레저에서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표현과 감성충족의 균형을 유지한다.

- 4WD를 기본 동력계로 다목적성과 래져 기능을 증가

- 자동 높이 조절기능 서스펜션(Suspension) 사용으로 도로 조건에 따른 다양한 주행모드를 제공
- 소형화에서 오는 실내 거주성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넓은 차체 높은 루프
- 다양한 실내 레이아웃 연출을 위한 기능성 시트 장착으로 공간 활용 극대화
- 재활용 가능한 재료사용으로 본질감을 높이고 시각적 강조와 표현을 중시
- 알루미늄, 카본파이버, 플라스틱 등 소재 사용으로 경량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 통신, 정보 오락기능의 전자 장비와 자연 친화적인 실내구성으로 고급화, 첨단화를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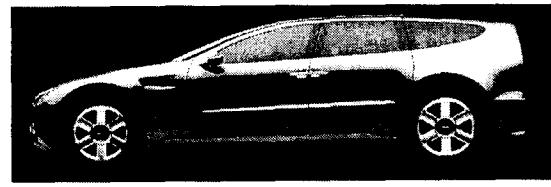
■ 자동차 유형별 크로스오버 사례

- 미니밴과 SUV(Sport Utility Vehicle)의 결합



(Renault 'Koleo')

- 왜건과 SUV의 결합



(Chrysler 'Citadel')

- 스포츠 쿠페와 SUV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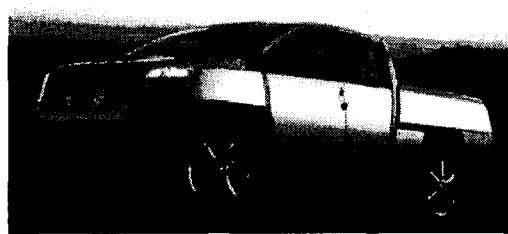
(Audi 'Steppenwolf')

- 승용차와 미니밴의 결합



(Bertone 'Filo')

- 픽업과 SUV의 결합



(Nissan '@T')

전반적으로 크로스오버 자동차에서 나타나는 디자인 특징들은 제각각 기능과 컨셉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커다란 디자인 조류에 맞춰 해석되고 이해된다.

■ 신 기능주의적 경향

기술 발전을 거듭하면서 과거 소재, 기술면에서 극복하지 못했던 조형과 공법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더 정교한 간결미를 가지고 조형적 진화를 계속하는 것으로 수공예적 완성도와 극소주의적(Minimalism) 경향을 보여 준다. 생산을 위한 기계 미학적 고려보다는 자동차 고유의 기능에 충실하려는 것으로 컴퓨터, 첨단 전자 측정 장비 활용으로 인간이 감지 할 수 없는데 까지 배려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 복고주의적 경향

과거 취향에 대한 향수와 양식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는 것으로 조형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활시켜, 현대 디자인이 주는 일상성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연 친화적 소재를 많이 사용한다

■ 기호학적 상징주의 경향

디자인의 표현과 조형을 하나의 기호 전달 체계로 간주하여 그 조형이 주는 상징성과 의미적 암시(Metaphor)를 드러냄으로서 사용자와 의사 소통을 기하고 그 제품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해시키려는 특성을 갖는다.

■ 팝아트적 경향

획일성, 표준화로 대변되는 기계미학적 물개성에 반발하여 유희적인 재미와 해학적 요소를 조형에 적용함으로서 조형과 기능에 집착하지 않고, 외향적인 형태와 표현관계만 연결 시켜 신선한 자극과 상상적 즐거움을 표현한다.

2. 결론

크로스오버 개념은 세계 자동차 업계가 생산의 과포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영역 확대를 통해, 미래 자동차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고민으로 받아 들여 진다. 그만큼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 졌고,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서 소비자 욕구를 앞장서서 개발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음을 말한다. 미래의 자동차가 어떤 모습으로 진화 할 것이며, 어떠한 기능과 개념으로 바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비단 자동차 디자이너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디자인경향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적용성(Adaptability)을 갖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장으로 정착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욱더 중시되는 다원적 개성 충족과 제한된 인류 자원 사이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능과 가치를 사용자의 감성과 교감 할 수 있도록 크로스오버 하느냐가 중요한 디자인 과제가 되며, 각각의 개성을 유지하며 서로 다른 것들이 융합하는 상생(Synergy)의 원리 하에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